

## 특 집

# 분노의 양륙인 목숨걸고 나선다

순박한 농심에 불을 질렀다. 꽃피는 봄부터 줄은 아초라도 먹일 심산으로 산에 오르고 비라도 올라치면 사슴장 준비하고, 발정기엔 흑여나 사슴이 다치지나 않을까, 밤새 큰 눈이라도 온다하면 같이 밤을 지새며 자연에 그저 순응하던 양륙인에게 뉴질랜드는 그들의 낯을 빼앗고 사슴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근두박질 치는 녹용 가격에도, 올리만가는 사료가격에도, 저가 제품의 난립으로 진흙탕이 되어버린 녹중탕 시장에도 “언젠간 나아지겠지”라며 내일을 희망하던, 어쩌면 바보스러우리만큼 유순한 이들이 희망조차 포기하라는 절편녹용 수입강요에는 폭발을 하고 말았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포기할 것도 없는 이들의 분노는 다가오는 9월11일 서울 한가

운데 증묘공원에서 울려 퍼진다. 이들의 분노는 비단 손가락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 강요에만 있지 않다. 고된 노동으로 굳은살이 박혀버린 손마디를, 사슴에 치여 생채기가 여럿인 그들의 몸뚱이를 책상에 앉아 펜 굴리며 수입 협상 진행하는 정부 관료들은 보았는가!

변변한 정책지원 하나 없이 오직 지구 노력만으로 30여만두의 사슴을 키워냈건만 정부는 이제 와서 이들을 볼모로 뉴질랜드와 무슨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인가?

생존권을 앗아가려는 뉴질랜드와 그것에 호응하는 정부를 향한 2만 양륙인의 분노는 9월11일 단 하루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시작이며 절편녹용 수입 의지가 꺾이는 날까지 목숨건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